

유 화 수

It's difficult for me to use .

목 차

3P ~ 14P ----- 2010 이후 작업 포트폴리오

15P ~ 17P ----- 물아일체物我一體

18P ~ 21P ----- 무용지물 無用之物

2010 ~



e-편한 세상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대
150cm x 50cm x 170cm, 아시바, 시멘트 지주, 거울 / 2010



e-편한 세상 신축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그네

250cm x 150cm x 230cm, 아시바 / 2010



이별한 k씨를 위로하는 테이블

70cm x 50cm x 80cm, k씨에게 기증받은 기타, 상다리



철거현장의 세입자들을 위한 드로잉 연작

각 40cm x 10cm x 50cm, 용산 신계동 철거현장에서 채집된 오브제 / 2010



철거현장의 세입자들을 위한 테이블

60cm x 50cm x 70cm, 용산 신계동 철거현장에서 채집된 오브제 / 2010



주차관리아저씨 의자

각 60cm x 60cm x 80cm, 표지판, 철 / 2011



대안공간 꿀풀을 위한 상들리에

1.5m x 1.5m x 1m , 아시바, 산업용 경광등 / 2010



대성건설 L사장님을 위한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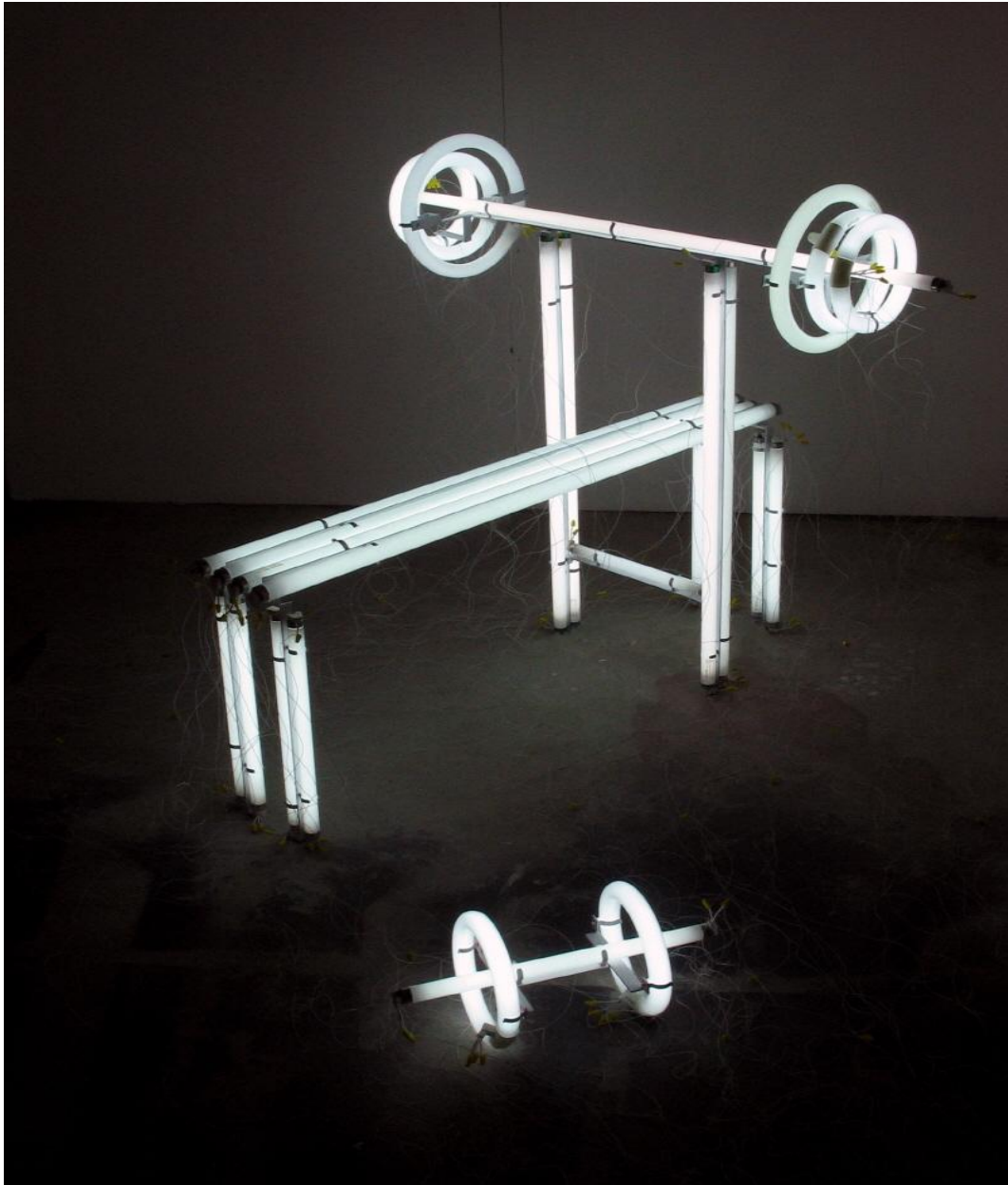
270cm x 50cm x 50cm , 시멘트블럭, LED, 나무 / 2011



지도자를 위한 나무

7m x 7m x 7m, 페 표지판, 경광등 / 2010, 청계천

“한국 사회에서 제 2 토건 부흥의 진원지로 꼽히는 2005년 개통된 청계천 복원 터 위로 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사실은 반어적이고 독설적이다. 3년여 간 집중된 건설 장비와 인력이 휩쓸고 지나간 청계천변 지면 아래로 공공 조형물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지면 아래로 토건 사업이 남긴 잔류 에너지를 흡수해 발육하는 인조 나무처럼 보인다. 토건 국가의 건축 자재로 동력을 조달하는 조형물이라는 역설. 유화수의 (공공) 조형물이 내포하는 일관된 역설이다. 민관에 지대한 폐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작가는 그가 속한 행정부의 건설 일방주의의 치부를, 공공미술이라는 가림막 뒤로 은폐하여 재현한다.”



야근이 잦은 김대리를 위한 벤치프레스

가변크기, 형광등, / 2010



신계동 한국타이어 대리점 H 대리를 위한 테이블

70cm x 70cm x 60cm, 페타이어, 강화유리, 상다리 / 2011

물아일체物我一體

힘한 일을 하는 공사장 노동자들은 간혹 신체의 일부를 잃는다. 그들의 도구들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신체에 맞추어 모든 도구들이 개조되어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전기업자는 손의 검지마디를 사고로 잃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사용하는 펜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손 도구에 손가락 한마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골무 모양의 부속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뿐인 도구이며,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해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때 방해가 되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은 여러 사람들(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특수한 직업적, 환경적 상황에 처한)에게 기성의 새 물품을 제공한 후 그 물건이 어떻게 변형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고자한다.

작업 과정과 전시를 통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주변의 오브제들이 용도 변경되는 생경한 모습을 끌어내어 물체와 신체,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어서 좀처럼 깨닫지 못했던 우리와 다른 신체와 환경을 공감하고자 한다.



덕수궁 망치손 영상 스틸컷(1f 영상설치 작업중 일부)



my car ('물아일체' 설치예정 이미지 관련사진)

무용지물 無用之物

겉보기에,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술가들은 잉여의 존재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전쟁인 작가들.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침묵을 묵묵히 견디며 그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예술가들을 포함한 (일반적 사회적 요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오브제들을 고안 할 것이다. 가령, '소설가의 머리를 식혀주는 오브제', '조형물을 간절히 원하는 조각가를 위한 드로잉'등 (포트폴리오 참조) 위의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기도,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흔히,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위의 -무용지물-장치들은 첫 번째 하위 프로젝트 -물아일체- 의 생계를 위한 도구들과 대비를 이루는 듯하지만, 중국에는 각자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은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둘은 결국 '도구적 인간'의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



어느 소설가의 머리를 식혀주는 선풍기

40cm x 40cm x 70cm , 선풍기, 1ch DVD 5'30" / 2010



지난 여름 작업이 안 풀리는 조각가를 위한 드로잉

14cm x 14cm x 10cm, 홈매트 / 2010



조형물을 간절히 원하는 한 조각가를 위한 드로잉

각, 20cm x 10cm x 25cm, 폐자재 / 2011